



인물탐구

이력서



박 익 수

1998년부터 3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이기도 한 박익수는 1924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다. 1943년 경성공립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1951년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다. 2차 세계대전이 최첨단 기술인 「원자폭탄」에 의해 종료됐다. 동시에 악몽과 같은 일본통치에서 해방을 맞게 된 그에게 「원자력」이란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관심과 호감을 갖게 했고, 그 이후로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것, 그러한 기관들의 국제적인 활동사항 같은 것등 원자력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지식의 가치로 소중하게 스크랩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신문의 시사평론에 열을 올렸다.

그는 우리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일처럼 생각했던 원자력문제가 당장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그는 우리의 후진성이 단숨에 선진국 수준에 비약할 것 같은 놀라움과 희열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새로운 과학에 대한 소개와 그것에 따른 철학적 사상적인 계몽을 위해 잡지에 투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청탁을 받아 쓰기 시작 한 것은 대학졸업 전인 1950년경부터이다.

이러한 생각과 취미로 계속된 생활 속에서 자기 모르게 이러한 분야에 대한 판단 안목과 식견 능력이 키워졌다. 이후 1955년 7월20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미 쌍무협정」이 가조인 되어 신문에 보도되었고 「한미원자력쌍무협정」과 관련하여 「원자력협정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자유 투고를 했고 아마도 원자력에 관한 시사평론이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의 첫 면의 「논단」에 게재된 것은 이것이 최초일 것이다. 이때부터 박익수의 평론, 시론의 신문

활동이 본격적인 출발의 계기를 가졌다.

이어서 1955년 10월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미 쌍무협정」에 대한 내용 문제에 대해 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인 장내원이 이를 제기하여 당시 문교부 원자력과 과장인 윤세원(전 서울대학교 부교수)이 이에 대한 장내원의 의견을 혹독하게 비판했고 이어서 동아일보사측의 청탁에 의해 그가 제 3자로서의 논쟁에 끼여들어 약 11일간의 논쟁이 계속되었고 그의 원자력에 대한 평론의 위치도 여기부터 확고히 굳어졌다고 하겠다.

1950년도와 1960년도에 있어서의 원자력 행정 및 원자력연구에 대한 논평과 평론은 거의 그의 독무대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력 비약의 기점 - 원자력원의 발족을 보고」, 「원자력 교육과 대학- 정책문제로서의 한 과제」 「원자로도 입과 우리의 관심」 등 주로 동아일보의 「논단」을 통해 논평을 계속했다.

원자력에 관한 사회적문제 라든지 원자력정책 등 원자력의 다방면에 대한 겁 없는 비판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에 대해 문제 있을 때마다 자주 신문에 기고할 때인 1961년 6월경 그는 당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임강사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사범대학의 강사로 1주일에 22시간 강의를 하는 바쁜 교수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자력원 원장으로 부임한 오원선의 부탁으로 원자력원에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1962년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 정책 및 법제문제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진정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하여 중앙정보부 부장의 자문 역할을 하는 과학관계 판단관으로도 일을 했다.

중앙정보부 판단관실에서는 주로 원자력 행정에

관한 것 외에 북한과학기술의 실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계를 위시한 과학기술계 현실의 전반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한다.

당시 대표적인 과학기술관계행정기관은 「원자력원」이었으므로 주로 원자력원 관련문제 외에 「북한과학기술의 실상」을 연구하는 과제 등 이었다. 이때 「판단관실」에서 행하는 각 분야의 판단은 행정부의 각 행정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만큼 또 행정부에서 큰 관심이 되었다. 실제 판단관실에서 일한 모든 판단관들은 그 업무에 보람을 느낄 정도였지만 너무나 중요한 업무일 때에는 부담감도 컸다고 한다.

1963년 4월에는 상임원자력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학에서 관직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자리는 정부 직제상으로는 차관급 직위였고 연구소장과 동격이었다. 그때 나이 39세였다. 10여년간 이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시점에 원자력원이 이러한 국책사업에 어떤 형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기획해야 했고 또 현행 원자력연구사업이 과연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해야 할 과제로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정했다.

첫째, 「원자력연구사업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으로 원자력위원회의 입장에서 목표연구계획 및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예산, 연구원, 인사관리 및 기기 구입계획이 그러한 목표연구 방향과 기준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상임원자력위원(오현위, 박익수)명으로 1964년 원자력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책자로 발간하여 연구소로 배포했다.

둘째, 방사선의학연구소에 이어 방사선농학연구소를 창설하여 「농업증산」이라는 국책목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째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소에서 무난히 수용했고 방사선 농학연구소의 창설에 대해서는 방사선 실용화 연구에 의해 원자력연구소에 있어서의 원자력연구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여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나온 방사선에 의한 벼 품종개량에 대한 사진과 방사선 조사로 감자를 장기 저장하는 사진을 얻어 가지고 1965년 11월 경제기획원에서 농업증산 및 농산물 장기저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방사선의 농학적이용은 현재 시비법 개량이라든지 병 해충의 구제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하루 빨리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우리의 농업증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급선무라는 것을 역설했고 이후 방사선 농학연구소는 1966년 1월 30일에 발족되었다.

그는 또한 원자력연구소 내에 방사선 공업적이용을 위해 「방사선 산업이용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도 이 때였다.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으로 방사선 공업적이용에 관한 활동도 수행 할 수 있게 했다. 그 활동의 중요한 내용은

- 1) 충주비료공장내 요소탑의 혼합특성을 방사선 탄소를 사용하여 추적자법에 의해 규명함으로써 공정개선 재료를 제공하였고
- 2) 탄광의 광내 침수경로를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광산은 물론 댐, 제방등의 누수구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그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 3) 항만매몰의 중요원인인 표사의 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기술로 방사선 규사를 말들어 추적자로 이용함으로써 축항, 항만개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 4) 파이프 등 금속제품의 두께를 측정하는 감마선 측후계, 종이등의 두께를 측정하는 베타선 측후계 등을 제작하여 관련제품의 품질관리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실험 현장에도 자주 연구관들과 어울렸다. 동시에 이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활동도 열심히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원자력연구소 외에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의 연구체제를 통하여 의학적, 농학적 및 공업적 원자력 평화이용의 실용화를 위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 11월 원자력원 훈령으로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에너지 수급전망 및 원자력발전기술개발의 현황 및 부지에 대한 예비 조사등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후 12월 대통령령에 따라 원자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임무를 띤 「원자력발전계획 심의위원회」가 원자력원에 설치되었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및 관계대학교 수 20명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의 위원장에 그가 임명되었다.

1966년 최초로 발전시설용량 20만kW급의 원자력발전을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며 그 동안 여러 곳의 부지조사 중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된 유력한 3개 부지를 선정하고 이 중에 최적부지를 선정한다는 1차적인 의견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이 때 단위용량 20만 kW로 정했던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건설,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의 용량이 20만 kW급을 넘지 않았고, 이 시점의 우리나라 전체 발전시설규모가 약 60만 kW여서 원칙상으로 단위시설 규모를 15만 kW이상 계획할 수 없었으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전력수요가 먼 평균 20%이상으로 증가하여 처음에는 20만 kW규모에서 1967년6월 30만 kW급으로 수정하였다가 다시 동년 10월 상공부의 전원개발계획이 수정되면서 1968년 3월 원자력발전계획도 50만 kW급 2기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수정되었다.

그 동안 1963년 10월 1차로 R.Krymm외 4명, 1965년 3월 J.D.Mccallen외 2명 그리고 1967년 6월 제3차 Mccallen Morris의 IAEA기술조사단이 초청되어 기술자문을 하였고, 한편 정부가 원자력발전기술조사단을 1966년 5월 1967년 10월 그리고 1968년 11월 3차에 걸쳐 파견하여 세계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가가 없었다. 이 사업에 처음 관여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견학하고 실무적인 일에 직접 참여한 경력이 많은 사람이 전문가였다고 그는 회고한다. 원자력발전기획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처음부터 임무에 중압감을 느꼈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탈피하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돌아 다녔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원자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건설허가의 절차 및 안전규제에 대한 법 그리고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을 새로 제정하여야 했고 이것은 원자력위원회의 직접적인 임무이며 바로 상임원자력위

원이 해야할 소관사항 이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초안은 원자력원의 행정실무자들의 수고를 잇을 수 없다.

상임원자력위원직을 떠난지 25년 지난 후 그 동안의 우리의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원자력법을 시행함에 있어 오늘까지 시시비비를 자주 하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법의 실무경험에서 익힌 경력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1월 원자력발전건설 추진위원회가 새로 국무총리의 자문기관으로 발족됐다. 그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 박충훈이었고 위원으로 원자력연구소장 그리고 상임위원인 박익수위원이 포함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상공장관 한국전력 전무 김종주 외에 관계대학교수들이 포함되었다.

3-4회의 위원회 개최로 그 기능의 수명은 다했지만 그 동안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첫째, 발전용원자로의 노형은 웨스팅하우스사의 가압경수형 발전원자로를 정하였고

둘째 원자력발전의 건설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허가 및 규제 등 업무는 원자력청이 담당하도록 업무 분배했다.

원자력원이 원자력에 관한 모든 국책사업의 추진 및 그 입법 및 규제에 관한 것을 통괄한다는 최초의 법의원칙이 이로서 파괴되고 원자력발전사업은 단순히 전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셈이다.

그가 1963년에 상임 원자력위원으로 임명되고 10년을 근무하다가 27년이 지난 1988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대통령직속)의 위원장(장관급)으로 다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가 그의 나이 75세이다.

그는 마지막 공직생활이었기에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물론 그가 해야할 부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보고 하는 일이다. 그는 연구행정이 너무 허술하다고 느껴 연구관리실태를 조사하였고, 엄격한 연구평가제도의 운영은 과학기술연구 행정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실하고 형식적인 연구평가제도의 운영은 그만큼 연구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투자가 이러한 부실한 연구관리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우리의 연구행정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도 모르는 체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니 이것을 무어라 변명할 것인지 참으로 폐쇄적인 행정은 개발 그만두기 바라며 우리과학기술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흐르는 물은 싱싱하지만 고인물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라는 격언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 원자력관계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중 가장 밑바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였다. **KRIA**

